

열정과 상실에 대하여

카롤리나 베가스

콜롬비아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할 때 ‘셔츠를 입는다’(ponerse la camiseta)는 표현을 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2010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실이 되었다. 거리는 녹색당의 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나 역시 거의 두 달 동안 주말에는 옷장에서 옷을 찾을 필요 없이 녹색 셔츠를 챙겨 입고 안타나스 목쿠스(Antanas Mockus)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나서는 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 페이스북은 정치적 선전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아직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쿠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콜롬비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납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목쿠스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 모든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대중적인 현상이었다. ‘녹색 물결’ 운동에는 번개모임, 비디오, 슬로건, 그리고 노래까지 있었다. “그날이 왔네, 왔네, 왔네. 창문을 열자, 안타나스와 햇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었다. 집회에서 우리는 외쳤다. “나는 돈을 받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왔다.” 이는 ‘타말을¹⁾ 대가로 투표’하는, 즉 돈을 받고 투표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마치 그것은 혁명, 결정적인 변화, 이전에 콜롬비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무엇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만 명의 공격적이고 확신에 찬 용감한

1) 타말(Tamal), 바나나 잎이나 옥수수 잎으로 말아 찢은 옥수수 가루 빵—유크인.



볼리바르 광장에서 7개 도시 자전거 순회를 준비하는 안타나스 목쿠스와 지지자들 (2010년 4월 11일)

지지자들이었음에도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이 현상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패배의 쓴맛을 남겼지만, 많은 콜롬비아 사람들, 특히 도시의 청년과 대학생들을 ‘법 준수에 대한 요구’라는 하나의 대의를 중심으로 모이게 만들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콜롬비아는 역사상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을 가졌다. 그 주인공인 알바로 Uribe는 4년 단임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여 재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대선을 1차 투표에서 당선을 결정지었다. 콜롬비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1차 투표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70%의 지지율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마친 Uribe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지만, 30%의 국민은 Uribe 정부가 8년 동안 보여준 모든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대표적으로 Uribe는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가 겪고 있는 무력 분쟁의 유일하게 가능한 출구이자 해결책으로 무장투쟁을 선택하였다. 또한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군

사적·정치적 승리를 달성하고자 온갖 수단이 사용되었다. 심지어 종교적인 가치에서도 그러했다. ‘엄격함’이라는 모토 아래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기에는 정부 정보기관인 DAS²⁾의 야당과 고등법원 인사에 대한 전화감청과 게릴라 토벌로 포장하기 위해 군인들이 여러 도시에서 빈민지역의 젊은이들을 살해한 ‘거짓 실적’ 스캔들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조지 W. 부시의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베의 집권과 함께 치안 문제가 개선되고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게릴라가 큰 타격을 입은 것 역시 확실하다. 이를 통해 경제가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다. 우리베의 윙크를 받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우리베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우리베가 국민통합사회당(Partido de la U) 후보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를 지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우리베 정책의 지속을 상징하는 여당의 후보가 되었다. 또한 산토스는 우리베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³⁾ 콜롬비아 분쟁의 역사에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하케 작전을 통해 잉그리드 베탕쿠르를 포함하여 15명의 피랍자를 구출하였고, 에콰도르에 위치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 본거지를 공격하여 이 게릴라 조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라울 레예스를 제거하였다. ‘거짓 실적’ 스캔들도 그가 국방장관으로

2) 콜롬비아 행정안보부(DAS: Departamento Administrativo de Seguridad)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부기관이다—옮긴이.

3)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2일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였다—옮긴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토스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8년 동안 대통령이 누린 ‘테플론’⁴⁾ 효과는 산토스에게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보고타 엘리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다. 작은할아버지인 에두아르도 산토스는 1938년부터 1942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산토스는 어려서부터 가문의 다음 대통령으로 키워졌다는 소문이 항상 나돌았다. 게다가 그의 가문은 수십 년 동안 주요 전국 일간지인 《티엠포》를 소유하였다. 경제전문가이기도 한 산토스는 우리베 정부에 입각하기 전에 세사르 가비리아 정부(1990~1994)에서 대외무역장관을,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정부(1998~2002)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였다.

‘녹색 물결’ 뒤의 남자

2010년 선거 결과는 명백해 보였다. 우리베의 후계자를 상대로 다른 후보들은 보잘 것 없는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감흥 없는 선거캠페인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세 명의 전직 보고타 시장, 즉 안타나스 목쿠스, 엔리케 페날로사, 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손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이 세 명 중에 누가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가 되어야 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이 후보들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3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보수당의 노에미 사닌, 자유당의 라파엘 파르도, 대안민주당의 구스타보 페트로, 급진변혁당의 헤르만 바르가스 예라스와 같은 후보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차츰차츰 전직 보고타 시장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였다.

4) 열에 강한 합성수지로 프라이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물질.



슈퍼영웅으로 분장한 안타나스 목쿠스

특히 이들이 시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융성한 ‘새로운’ 보고타에서 자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새로운’ 보고타는 가장 시민적이고 가장 조직화되어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혼란’으로 특징되던 보고타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5년 시장에 취임한 안타나스 목쿠스였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인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된 사람 역시 리투아니아계 이민자의 아들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안타나스 목쿠스였다.

스였다.

아우렐리우스 루테니스 안타나스 목쿠스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교인 콜롬비아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특히 천 명이 넘는 시위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 학생들을 조용히 시킨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물론 이 사건으로 총장 사퇴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영향력을 가진 것도 아닌 콜롬비아의 전형적인 중산층 출신인 안타나스 목쿠스는 당시 무소속으로 보고타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시장으로서 안타나스 목쿠스는 보고타에서 시민정신 회복을 위한 강력한 교육캠페인을 개시하였다. 시민들이 법을 알고 존중하고 실행하도록 이끄는 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신호등을 지키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사

소한 일이 보고타 시민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 콜롬비아의 최대도시에서 혼란을 사라지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당시 부정부패의 상징인 교통경찰을 없애고 그 업무를 국가경찰이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부당한 이용에 익숙한 시의원들과 타협을 거부하였다.

‘슈퍼시민’이라고 부르는 슈퍼영웅으로 분장한다거나, 광대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웃음과 약간의 건전한 창피를 줌으로써 법규위반자의 행동을 바로잡는다거나, 보고타에서 강도와 살인 사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술집과 식당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치—실제로 강도와 살인사건 발생률이 감소했다—를 설명할 목적으로 모든 약속과 인터뷰에 거대한 당근 인형—이렇게 문을 닫는 시간을 그는 ‘당근 시간’⁵⁾이라고 불렀다—을 안고 참석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통해 안타나스 목쿠스는 시민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장직 수행 덕분에 콜롬비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로 2001년 보고타시장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녹색 물결’이란 무엇인가?

안타나스 목쿠스는 진보를 위한 도구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주장해 왔다. 교육정책과 더불어 법을 존중하는 정부를 주창하였다. 이에 대해 작가이자 《티엠포》 칼럼니스트인 리카르도 실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목쿠스가 제안한 것은 문자 그대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말과 법을 믿지 않고, 많은 경우 법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라에서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제안은 글로 쓰인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5) ‘당근’은 스페인어로 ‘zanahoria’라고 하는데, 목쿠스는 이 단어가 ‘건전한’이란 뜻의 형용사 ‘sana’와 ‘시간’을 뜻하는 명사 ‘hora’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펼쳤다—옮긴이.

“생명은 신성하다!”, “단결이 힘을 만든다!”, “모든 게 꼭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호가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지지자들은 무료로 나눠주기 위한 포스터를 자발적으로 디자인하고 인쇄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는 명실상부하게 선거캠페인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선거 초반 3%에 불과하던 안타나스 목쿠스의 지지율은 38%로 상승하여 산토스를 앞질렀다. ‘녹색 물결’이 온 나라를 점령하고 승리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1차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2차 투표에서는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득표율은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결국 우리는 1차, 2차 투표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2010년 당시 《레비스타 세마나》의 정치섹션 주간이던 정치학자 라리사 피사노는, 녹색운동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칼럼니스트나 논설위원의 의견이 일반적인 선거의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믿은 것, 소셜네트워크를 맹신한 것’을 꼽았다. “안타나스 목쿠스의 선거진영에서는 경쟁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논쟁에서도 패배했다.”

인구 4천4백만 명의 개발도상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는 전국적인 여론의 실제적인 파노라마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소셜네트워크는 실제 여론보다 더 진보적인 면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동적인 젊은이들 중 대부분은 선거운동 기간의 활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산토스 선거 진영과 많은 매스컴에서는 안타나스 목쿠스가 군대를 축소하려 한다거나 우리베 대통령을 범죄자 신분으로 타국에 인도하려 한다거나 무신론자라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반복해서 알리는 데 치중했다. 일부 엘리트, 기업가, 미디어 권력집단에서는 녹색주의자들이 집권할 경우 권력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넌더리가 나도록 반복하였



다. 목쿠스의 선거참모진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미디어 경영자들이 산토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경영자들 중 두 명은 산토스의 친인척이다. 《티엠포》의 경영자인 로베르토 폼보는 사촌누이의 남편이고, 《레비스타 세마나》의 경영자 알레한드로 산토스는 조카이다.

결정적으로 1차 투표 이후 산토스는 거의 모든 다른 정당과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처음에는 목쿠스와 연합할 것으로 예상하던 자유당까지 산토스 측과 제휴했다. 녹색주의자들은 홀로 남았다. 리카르도 실바의 말처럼, “사실 이들의 제휴는 이데올로기적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파르도 집안, 산토스 집안, 바르가스 예라스 집안 등의 친분은 평생에 걸쳐 이뤄진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함께 공부했고 주말에 함께 만난다. 이 권력집단은 2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콜롬비아에서는 그러한 권력과 편협성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

선거캠페인은 우리베의 상속자와 ‘반우리베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대립으로 변하였다. 최종 결과는 직전 대통령의 인기를 보여준 설문조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였다. 산토스의 지지율은 70%에 달하였고, 목쿠스의 지지율은 30%에 머물렀다.

지금은?

‘녹색 물결’을 지지한 우리는 콜롬비아가 유일한 후보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선거기간에 발생한 여러 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타나스 목쿠스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나스 목쿠스가 다시는 대권의 꿈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다. 그런 일은 생각만해도 고통스럽다. 안타나스 목쿠스는 더 나은 콜롬비아를 꿈꾸었다. 법과 생명이 존중되는 콜롬비아, 고상한 가문 출신이 아니더라도 배움만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콜롬비아였다.

현재 대통령은 산토스이다. 처음에 나는 콜롬비아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비꼬는 말이 아니다—산토스는 배신하는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명성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반대자는 바로 우리베이다.

전임자가 짓밟으려 한 법이 의회에서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희생자배상 및 토지반환법이다. 산토스는 우리베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우리베가 임기 동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그 덕분에 《타임》과 같이

중요한 세계 언론의 표지에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다. 《타임》은 산토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베는 콜롬비아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우리베의 인권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우리베 정부 시절 인사의 부정부패 및 간첩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많은 사람이 산토스가 안타나스 목쿠스와 매우 유사하게 자유주의 의제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녹색 물결’과 같은 운동이 우리베 집권기간에 잃어버린 정치적 중심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확신을 산토스에게 가져다 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안타나스 목쿠스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의 도전이 헛된 것은 아니었음을 나는 지금 실감하고 있다.

[김동환 옮김]

카롤리나 베가스(Carolina Vegas) - 콜롬비아에서 기자, 방송인, 문예지 편집자로 활동하였으며, 첫 소설 출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다.

김동환 -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UIA) 박사과정 재학.